

2018년 2월 6일(화)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2월 5일(월)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한편 중국, 동남아 등 개도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우리 기업 상표 무단선점, 온오프라인상의 위조상품 유통 등에 대해서도 선택과 집중, 자동화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우선, 작년 9월, 중국 상표브로커에 대한 무효심판에서의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공동대응협의체’ 지원사업을 활용, 가능한한 신청 기업 전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피해대응을 위해서도 중국의 일부 전자상거래업체에 한정했던 위조상품 대응협력을 태국, 인도, 베트남 등의 주요 쇼핑몰 업체와도 확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증가하고 있는 게임 및 애니메이션 등 한류 콘텐츠 상품 수출을 감안하여 해외에서의 콘텐츠의 상품화 및 관련 지재권 보호전략 수립 등도 본격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허청은 2017년에 지재권 보호필요성이 높은 인도와 인도네시아에서 IP-DESK를 추가로 개소하였고, 전체 14개의 IP-DESK에서 6,598건, 분쟁컨설팅으로 전년대비 31% 증가한 640개 기업, 소송보험으로 전년대비 17% 증가한 258개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조상품 게시물 20,302개를 퇴출시키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지재권 분쟁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지재권 인식과 역량이 많이 높아지고 해외 진출도 더욱 활발해지길 바란다”며, “외교부, 산업부 등 정부 관련부처 및 KOTRA,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지재권 보호 전문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사무관 박종필(☎ 042-481-357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